

전주시, 교통 모범도시 '우뚝'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서 4년 연속 우수상 수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내버스 정기권'으로 최우수정책상 선정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한 전주시가 지속가능 교통 모범도시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시내버스 정기권'으로 최우수정책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응하는 교통체계 현황과 정책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 ▲교통의 안전도 ▲환승 편의성 ▲배출량 감축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부문 총 32개 지표에 대한 세부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보행자가 안전한 걷

고 싶은 도시 ▲맘껏 자전거를 타고 누비는 도시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면서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교통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시는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 모범도시로 다시 한 번 인정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와 시내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정기권' 정책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내버스 정기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 시내버스 정기권이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혼잡 절감, 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사회적·환경적 편익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 상은 생태교통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교통기반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등 가정 방문해 혈압·혈당 등 측정·건강수칙 교육 등 실시

전주시가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폭설·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는 14명의 인력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주요 질환별 겨울철 건강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심뇌혈관 계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파대비 행동요령

▲한랭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이와 함께 월별 건강정보와 건강관리요령 등을 수록한 내년도 건강달력을 제작·배부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체온 유지를 위한 방한 장갑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가 발령될 경우 방문간호사와 직원 등 17여 명이 안부 전화와 수시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취약 노인들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상 예방 스프레이 도포사업도 300여 건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 방문보건센터는 취약계층 5,500여 가구에 대해 동별 담당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 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열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해 건강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민영 의료기관서 코로나검사 시행... 당일 결과 확인 가능

이기은진단검사의학과의원

도내에도 코로나검사를 실시하는 민영 의료기관이 있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이기은진단검사의학과의원(원장 이기은)은 지난 11월부터 코로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타 지역으로 검체를 보낼 경우 운송시간과 물량증가로 인한 대기 등

으로 2~3일의 검사 소요기간이 필요했으나, 지역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당일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검체운송을 제외한 순수한 검사시간은 3~4시간이며, 재검 및 비교평가가 필요할 경우 추가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이 의원이 운영중인 분자진단검사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증과 요구를

다했다. 검사방법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Real Time RT-PCR법이며, 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검체에서 미량의 DNA를 찾기 위해 DNA를 여러번 증폭해 검출하는 방법으로, 이론상으로 소량의 DNA만 존재하더라도 검출이 가능하므로 코로나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존재유무를 검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

한국에서 꼭 가 봐야 하는 관광지 '전주' 알린다

시, 마평위·샤오홍수·웨이보 등 중국 SNS 채널 활용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홍보 집중

전주시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중국판 틱톡 플랫폼 '샤오홍수', 중국 최대 블로그 사이트 '웨이보' 등을 통해 올린 전주 여행지 사진과 영상이 총 1,623만 회의 노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주를 한국에서 꼭 가 봐야 하는 관광지로 알리기 위한 이번 홍보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상하이지사 후원을 받아 중국 유명 SNS 채널을 활용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시는 중국 현지 인플루언서(influencer)와 협력해 전주 사진 등이 개별 계정을 통해 포스팅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 내 전주시의 인지도와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실제 방문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어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가족을 타지로 한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는 지난달 선양 한국주(周) 행



전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중국판 틱톡플랫폼이라 불리는 '샤오홍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샤오홍수', 중국 최대 블로그 사이트 '웨이보' 등을 통해 올린 전주 여행지 사진과 영상이 1,623만 회의 노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 겸 한중무역 투자박람회 참여해 홍보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사업추진단 관계자는 "현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여행객 유치는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도시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혁신도시 악취문제 개선해 쾌적한 환경 만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내년 1~10월까지 혁신도시 일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

전주시가 기지제 수질 개선과 하수도 역류 방지에 착수하는 등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6,700만 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일원 공공하수관로 14km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술진단은 혁신도시 내 하수도 악취를 없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시는 만성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한 혁신도시 일원의 하수관로 현황, 유량 및 수질조사, 연막시험과 CCTV 촬영 등을 통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공하수관로에 잘못 연결된 가정 우·오수관이 하수도를 역류하게 만들거나 악취를 유발시키는지 여

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 역류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보수·보강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활용해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예산을 확보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집중호우 등 우기철의 상습적인 하수도 역류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악취를 저감해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혁신도시 기지제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지제 상류 조천천 3.7km 구간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토질·수질 분석 연구용역을 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두현마을과 용흥마을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바꾸고, 상림마을 공제팔위로 주변의 하수정비 공사에 착수해 기지제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병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역류 및 악취문제 개선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도시 거주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